



Built to Lead

즉시 배포용: 2016 년 9 월 1 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 및 이용세 감면 정책 시행 발표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 및 이용세 감면 정책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. 7 월에 Cuomo 주지사는 이 면세정책을 시행하는 법안 (A.7555-A/S.7838)에 서명했습니다.

“여성에 대한 이 역진세를 제거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이고,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”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이 법의 시행으로,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.”

여성용 위생용품은 1965 년 처음으로 뉴욕주 판매세를 도입한 이래로 계속 과세되어 왔고, 심지어는 면세 제품이었던 다이어트와 가족 계획 제품과 같은 다양한 기타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뉴욕주는 여성용 위생용품에서 판매세를 감면하는 운동에 참여한 최초의 주들 중 한 곳입니다, 이 법안으로 여성들이 탐폰과 기타 유사한 제품군 구매시 대략 1 년에 1 천만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8 월 1 일, 뉴욕주 세무 재정부는 모든 소매 업체들에게 9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습니다. 어떤 뉴욕 주민이라도 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믿을 경우, 세무부에 [AU-11 양식](#)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해서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 면세에 대해 질문이 있는 소매업체는 오전 8:30 분에서 오후 4:30 분 사이에 전화 518-485-1159 번으로 세무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